## [초안]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친구가 두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이 ‘넌 프로그래밍이 적성'이라고 옆에서 계속 꼬드겼어요. 제가 퍼즐류의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좋아하면 코딩을 잘한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안 한다'고 말했었는데, 42서울의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니 ‘이게 기회인가' 싶더라고요.”

“피신을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더 했어요. 같은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피신 중간에 일주일을 쉬었거든요. ‘힘든 걸 일주일이나 더 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겐 그 일주일이 휴식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전 7시 반에 수원에 있는 친구 집에서 출발해서 클러스터에서 공부하다가, 새벽 1시에 있는 막차를 타고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했거든요. 마지막에 이틀 정도는 밤을 아예 새웠어요.”

“코딩 경험은 없지만,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C언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피신은 그때 배운 걸 활용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피신에 참여하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42에서 의도한 동료학습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쉘이에요. 100점을 받기 위해 과제 재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굳이 만점을 받지 않아도 다음 과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다 100점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쉘을 공부하다 C언어 과정으로 넘어왔을 땐, “아 C 너무 좋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하하).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 피신도 격일제로 진행됐어요. 1그룹, 2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요일에 클러스터에 나가는 방식이에요. 클러스터를 나가지 않는 날엔 진도를 나가고, 출석하는 날엔 평가만 받았어요. 초반에는 스터디를 구해서 출석하지 않는 날에도 오프라인에서 공부했어요. 도중에 오프라인 스터디가 와해돼서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더 낫더라고요.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디스코드 온라인 스터디를 병행하니까 괜찮았어요.”

“피신 동안 세 번 정도 평가 세일이 있었어요. 평가 포인트를 사람들이 일정량 기부하면, 그 풀이 소모될 때까지 평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제가 속한 2그룹이 출석하는 날엔 평가 세일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1그룹이 클러스터에 나오는 날에 평가 세일이 열리고, 열린 당일 평가 포인트 풀이 모두 소진됐어요. 종일 클러스터의 컴퓨터가 먹통이 돼서 사용할 수 없었던 날도 있었고, 저희 그룹은 운이 없네요.”

“오늘 치른 파이널 시험은 아는 문제까지만 풀고 일찍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끝내고 나오긴 했지만,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걱정돼요. 2주 만에 이미 10레벨을 넘긴 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첫번째, 두번째 시험 점수가 낮아서 마음에 걸려요. 본과정 커리큘럼을 잘 몰라서 합격한다면 뭘 하고 싶다고 콕 집어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지금으로선 막연하게 VR과 관련된 것을 해보고 싶어요.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 

## [스케치]

처음에 만난 상황 === 저는 jseol. (2시간 만에 푸셨네요?) 네 거기까지만 풀어서. 스플릿. (스플릿 뒤엔?) 그다음부터 함수포인터.. 저는 거기까지 공부를 안해서. C11부터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6시까진가요?) 10시부터 6시까지니까. (내가 스플릿 못푼 얘기, 원래 코딩 하셨어요?) 이거 되고 한달 공부하고 왔어요. 온라인 테스트 합격하고 한달 공부하고 왔어요. (그럼 잘하시는 거네요.)

레벨에 대한 불안함 ===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항상 많이 느꼈죠. (요즘 사람들 레벨?) 저는 시험 보기 전에는 8레벨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평균같아요. 일주일 쉬는 동안 개인 과제 진도를 다들 엄청… 물론 저도 그러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exam 00 01이 점수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시험보고 레벨은 9.14네요. 걱정이네요. 낮은 것 같아서. 시험 보기전에도 10, 9레벨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못하셨다 이런 건 아닌데 1기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갈 수록 상향평준화 되지 않을까.

(잘하는 사람들은 뭘보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제를 빨리 하는 사람들?) 가장 눈에 보이는 지표는 그거니까. 저희가 언제였찌 01 시험보고 일주일 쉬었는데, 쉴때 인트라에서 이미 레벨이 10인 분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전에 과제를 다 뚫어놓은 거죠. 그런 괴물같은. 2주만에 그 과제를 다 한거죠.

피신 생활 === 한달 하고 일주일 더 했죠. 코로나떄문에 일주일 쉬어서. (확진자 강남에 나와서.) 힘들었어요. 일주일 아니었으면 저는 체력적으로 못버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힘든 걸 일주일이나 더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에겐 휴식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루에 몇시간씩? 패턴?) 저는 9시반쯤 클러스터오면 막차가 1시라서 그거 타고 집에 갔어요. 급한날은 마지막 이틀은 밤샜고요. 어제 빼고. 주말이랑 화요일은 밤샜고. 나머지믐 10시 나와서 1시에 가는.

저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격일로 하니까 1그룹, 2그룹 나눠서 하는 데 저는 2그룹이었는데. 평가하는 데 일부로 클러스터 나오는 날에만 나오고. 클러스터에 나오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가 먹통이 돼서, 저는 그날 그냥 안돼서 집에 일찍 가는데 오후 6시부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었고, 이거 너무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 말해봤자 아무것도 안해주니까.

평가 세일도 한번도 못받아 봤어요. 2그룹 있을 때는 한번도 안열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한 세번 정도 있었는데 1그룹 있는 날에 열리고 소진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걸러 하루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스터디를 구해서 하다가, 그게 와해돼서 집에서 했는데, 사실 그게 더 낫더라고요. 디스코드 스터디를 구해서 디스코드 하면서 했고, 클러스터 나가는 날은 평가 하고 평가 받고만 반복하고 진도는 집에서만 나갔던 것 같아요.

피신에서 힘들었던 것 === (해보니 어때오, 계속 해야겠다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까 싶긴 해요. 사실 여기 와서 배운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달 여기 오기전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때 배운 걸 활용했지 엄청난 걸 배운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쉘? (워낙 한달을 빡세게 하셨나보다.) (골머리 앓았던 과제?) 저는 사실 쉘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걸 트라이를 엄청나게 했어요. 100점 아니어도 통과는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처음이라서 100점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 했어요. 몇십점 이상이면 넘어간다는 걸 알긴 했는데 처음에는 다 100점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쉘하다 C 왔을 때, 아씨 너무 좋다! 이랬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 === 사실 할게 없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가, 아르바이트 이것저거. 주변에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친구가 두명 있는데, ‘넌 이게 적성이다'라고 꼬셔서. 전 절대 안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돼서 기횐가 싶어서 왔어요. (친구들이 어떤 면을 보고 해야한다고 했는지) 제가 항상 게임하고 그런거 보면 퍼즐 풀고, 이런 걸 좋아해서 걔들이 맨날 그런 걸 보니까. 이런거 좋아하면 이런거 하면 잘한다. 스도쿠 같은 것들.(온라인 테스트도 재밌었겠어요.) 온라인테스트 재밌었는데, 기억력 테스트는 어려웠어요.

피신 티케팅 === 20’00” 올해 1월 신청했어요. 선착순으로. (혼자했어요?) 저는 PC방에서 친구 데리고 컴퓨터 두대써서 했어요. 선착순은 순식간에 마감됐어요. 42분에 열린다 이랬는데, 40분에 열렸던 적도 있고 45분에 열리기도 하고.

21’00” (티케팅이 한번이 아녜요?) 온라인 설명회 한번 티케팅 해야하고, 온라인 설명회하고 나서 피신 과정도 티케팅 해야하고. 두번. 온라인 설명회를 들어야 피신 신청할 수 있어요. 선착순을 두번 했어야 했어요.

주변에서 피신을 한다면 == (누가 피씬 들어오는데 공부하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묜. 물론 42가 원하는 동료학습 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공부를 하고 오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 [녹취]

저는 jseol. (2시간 만에 푸셨네요?) 네 거기까지만 풀어서. 스플릿. (스플릿 뒤엔?) 그다음부터 함수포인터.. 저는 거기까지 공부를 안해서. C11부터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6시까진가요?) 10시부터 6시까지니까. (내가 스플릿 못푼 얘기, 원래 코딩 하셨어요?) 이거 되고 한달 공부하고 왔어요. 온라인 테스트 합격하고 한달 공부하고 왔어요. (그럼 잘하시는 거네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항상 많이 느꼈죠.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스플릿 다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스플릿이 11번째 문제여서. 레벨 11? (jwon 파이널 시작 못한 문제.) 오늘도 처음 몇몇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멘탈 털릴 것 같지 않아요?) 그치만 42는 절대 보상 안해줄거고. (그쵸 그건 너의 운이다..) 힘드셨겠네.

(이번 피씬 어땠어요?) 한달 하고 일주일 더 했죠. 코로나떄문에 일주일 쉬어서. (확진자 강남에 나와서.) 힘들었어요. 일주일 아니었으면 저는 체력적으로 못버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힘든 걸 일주일이나 더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에겐 휴식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루에 몇시간씩? 패턴?) 저는 9시반쯤 클러스터오면 막차가 1시라서 그거 타고 집에 갔어요. 급한날은 마지막 이틀은 밤샜고요. 어제 빼고. 주말이랑 화요일은 밤샜고. 나머지믐 10시 나와서 1시에 가는.

(요즘 사람들 레벨?) 저는 시험 보기 전에는 8레벨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평균같아요. 일주일 쉬는 동안 개인 과제 진도를 다들 엄청… 물론 저도 그러긴 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전향하려고 배우는 거에요?) 사실 할게 없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따가, 아르바이트 이것저거. 주변에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친구가 두명 있는데, ‘넌 이게 적성이다'라고 꼬셔서. 전 절대 안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돼서 기횐가 싶어서 왔어요.

(뭘보고 적성이래요?) 친구들이 놀리는 걸로. 이거 해야된다 꼬시는 말로. exam 00 01이 점수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성장형 인재네요. 엄청 찐하다. - 클러스터 시간) 아 이건 온라인으로 들어간 게 안끊겨서 그런 것 같아요. 클러스터에 안가는 날은 과카몰리로. 평가는 클러스터에서 해야 했고.

시험보고 레벨은 9.14네요. 걱정이네요. 낮은 것 같아서. 시험 보기전에도 10, 9레벨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못하셨다 이런 건 아닌데 1기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갈 수록 상향평준화 되지 않을까.

주변에 본과정에 아는 분들 있는 사람들 있어서 정보가 많이 알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42가 원하는 건 모르고 하는 느낌일텐데.

10’00” (본과정 되면 할거에요?) 하려고 하는거죠. (당황) 피신만 경험하시는 분들은 전공으로 해보셨고, 경험삼아 하시는 분들.

(해보니 어때오, 계속 해야겠다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까 싶긴 해요. 사실 여기 와서 배운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달 여기 오기전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때 배운 걸 활용했지 엄청난 걸 배운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쉘? (워낙 한달을 빡세게 하셨나보다.)

(말록 썰…)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재밌는 에피소드) 07 처음 평가받을 떄, 첫 평가해주시는 분에게 45분 써버린 거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평가했는데. 그 다음분 평가하는 분도 같이 들으면서 했는데, 그 평가해주시는 두분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농담을 많이 하시고.

강남은 회사 많고 해서 먹을 건 많았던 것 같아요. (개포동 먹는 거 얘기…)

4기 2차까지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해요. 300명 300명해서 250명 뽑는댔나.

(누가 피씬 들어오는데 공부하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묜. 물론 42가 원하는 동료학습 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공부를 하고 오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여기 학습방식은 잘 맞았어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저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격일로 하니까 1그룹, 2그룹 나눠서 하는 데 저는 2그룹이었는데. 평가하는 데 일부로 클러스터 나오는 날에만 나오고. 클러스터에 나오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가 먹통이 돼서, 저는 그날 그냥 안돼서 집에 일찍 가는데 오후 6시부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었고, 이거 너무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 말해봤자 아무것도 안해주니까.

평가 세일도 한번도 못받아 봤어요. 2그룹 있을 때는 한번도 안열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한 세번 정도 있었는데 1그룹 있는 날에 열리고 소진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벤트 없었나요?) 화면 안잠근 사람 골탕먹이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걸 하는 스탭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색반전 해놓고 슬랙에 몰래 글 올려놓고 그런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런걸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이전에 정보도 검색해보고 그랬을 거잖아요.) 구글링해서 후기만 엄청 찾아보고.

20’00” 올해 1월 신청했어요. 선착순으로. (혼자했어요?) 저는 PC방에서 친구 데리고 컴퓨터 두대써서 했어요. 선착순은 순식간에 마감됐어요. 42분에 열린다 이랬는데, 40분에 열렸던 적도 있고 45분에 열리기도 하고.

21’00” (티케팅이 한번이 아녜요?) 온라인 설명회 한번 티케팅 해야하고, 온라인 설명회하고 나서 피신 과정도 티케팅 해야하고. 두번. 온라인 설명회를 들어야 피신 신청할 수 있어요. 선착순을 두번 했어야 했어요.

23’30” (본과정에 와서 하고싶은 것?) 본과정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가.. 막연히 생각해본 건 VR 해보고 싶다. 하기 시작해서 되면 뭘해야할까 생각했을 때… (본과정 커리큘럼 설명해주는 중)

두분은 블랙홀이 얼마나 남았어요? (100여일 정도.) 여유롭나요? (부지런해야 해요. 이너서클 과제를 다 뚫어야 블랙홀이 사라지는데) 이정도면 여유롭나요? (마지노선 같아요.)

27’00” 자주보이는 이름이 유명하다. 두분정도 계시는데, 탱? 송피디?

(하루 걸러 하루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는 스터디를 구해서 하다가, 그게 와해돼서 집에서 했는데, 사실 그게 더 낫더라고요. 디스코드 스터디를 구해서 디스코드 하면서 했고, 클러스터 나가는 날은 평가 하고 평가 받고만 반복하고 진도는 집에서만 나갔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는 것도 있긴 있었죠.

(친구들이 어떤 면을 보고 해야한다고 했는지) 제가 항상 게임하고 그런거 보면 퍼즐 풀고, 이런 걸 좋아해서 걔들이 맨날 그런 걸 보니까. 이런거 좋아하면 이런거 하면 잘한다. 스도쿠 같은 것들.(온라인 테스트도 재밌었겠어요.) 온라인테스트 재밌었는데, 기억력 테스트는 어려웠어요.

(들어오실 것 같아.) 그러면 좋겠네요.

(잘하는 사람들은 뭘보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제를 빨리 하는 사람들?) 가장 눈에 보이는 지표는 그거니까. 저희가 언제였찌 01 시험보고 일주일 쉬었는데, 쉴때 인트라에서 이미 레벨이 10인 분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전에 과제를 다 뚫어놓은 거죠. 그런 괴물같은. 2주만에 그 과제를 다 한거죠.

처음에는 다들 몰랐는데 진행하면서 인터넷에 많이 배포돼있잖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처음엔 몰랐는데.

(골머리 앓았던 과제?) 저는 사실 쉘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걸 트라이를 엄청나게 했어요. 100점 아니어도 통과는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처음이라서 100점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 했어요. 몇십점 이상이면 넘어간다는 걸 알긴 했는데 처음에는 다 100점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쉘하다 C 왔을 때, 아씨 너무 좋다! 이랬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전엔 진짜 이것저것.